

종합

삼성전자, 30나노 64기가 낸드플래시 세계 첫 개발 손톱크기 칩에 영화 80편 수록

3년간 200억달러 시장창출 효과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0나노 64기가비트(Gb)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했다. <관련기사 11면> 이로써 삼성전자는 2002년 이래 8년째 이른바 '황(黃)의 법칙'을 입증했다. '황의 법칙'이란 반도체 집적도

가 매년 2배씩 증가한다는 삼성전자 황창규 반도체총괄 사장의 메모리 신성장론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2002년 이래 매년 9월 신제품 개발 공개로 이를 입증해왔다. 삼성전자는 23일 오전 공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

했다. 이번엔 적용된 30나노 기술은 머리 카라 두께의 4천분의 1 정도의 초미세 기술이다. 또 64기가비트 용량은 세계 인구 65억 명의 10배에 해당하는 640억개 메모리 저장장소가 손톱만한 크기에 집적돼 한치 오차없이 작동되고 있음을 뜻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 개발을 통해

오는 2009~2011년 3년 누적 기준으로 볼 때 200억달러 규모의 시장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개발에는 '전하는 기존의 도체가 아닌 부도체 물질에 저장한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셀간의 간섭문제를 완벽히 해결한 삼성의 독창적인 SaDPT 기술을 결합시켜 얻은 성과"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IT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1장에 신문 800년치...용량한계 사실상 소멸

유전자 정보 동시저장 BT산업 급발전 예고

삼성전자가 개발한 64Gb 낸드플래시가 양산되면 이 제품 8개를 쌓아 64GB 메모리 카드를 만들 수 있어 이를 채용한 64GB MP3 플레이어가 제작 가능해진다. 이 경우 하나의 MP3가 1만6천 곡의 노래파일을 담을 수 있게 된다. 또 하드디스크 대체 제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SSD(Solid state drive)는 1.8인치를 기준으로 용량이 기존 64GB에서 256GB로 늘어

나게 된다. 이 제품 16개를 쌓으면 최대 128GB의 메모리 카드가 등장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카드 1장이면 DVD급 화질 영화는 80편, MP3는 3만2천곡, 일간지는 800년 분, 사진은 7만2천장, 주간지는 40만부를 각각 담을 수 있다"면서 "5장이 모이면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에 있는 220만권의 장서를 모두 저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특히 이 카드는 1장에 약 40명의 DNA 유전자 정보를 동시에 저장할 수 있어 앞으로 다가올 바이오 IT(정보공학)시대에 요긴한 저장매체로 활용될 전망이다. 플래시메모리가 문자와 사진·음악·동영상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했다가 자유자재로 꺼낼 수 있는 수단에서 진일보해 BT(생명공학)시대를 여는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DNA 중 30억개의 특정 DNA 정보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DNA 유전자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데, DNA 1개의 정보를 저장하는데 1바이트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128GB 용량은 40명 분의 DNA 정보를 담을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모델들이 새 낸드 플래시의 웨이퍼와 칩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中 후진타오 후계자 지목 시진핑 박준영 지사와 각별한 인연 '눈길'

1998년 전남도와 자매결연 상호 방문때마다 극진 대우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뒤를 이을 차기 지도자로 부상한 시진핑(習近平) 상하이 당서기가 박준영 전남지사와 각별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등 한국과도 인연이 깊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도는 1998년 저장(浙江)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박 지사는 2002년부터 올 3월까지 저장성장을 지낸 시 총서기와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왔다. 시 총서기는 지난 2005년 외교통상부의 중국 고위인사 초청 프로그램으로 처음



지난 7월 상하이를 방문한 박준영 전남지사가 시진핑 총서기와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모습. <전남도매체>

방한했을 당시 광주에서 박 지사와 만나 인연을 맺었다. 당시 시 총서기는 성정부 고위인사 10여명과 60여명의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 저장성 투자설명회를 주관하고 광양제철소와 제주도 등을 방문했다. 이후 2005년 11월 박 지사가 저장성을 답방했을 때 시 총서기가 직접 시후(西湖) 국립관에서 환영 만찬을 주재했다. 또 시 총서기는 올해 7월 박 지사가 상하이를 방문

했을 때도 극진하게 대우했다. 그는 오찬에서 박 지사를 '야오 쑹여우(老朋友)'라고 불렀다. 오랜 친구라는 뜻으로 그만큼 둘 사이의 친분이 깊다는 의미다. 또 박 지사가 상하이 임정청사 주변 재개발과 관련해 청사를 보존하는 데 협조를 요청하자 이를 흔쾌하게 받아들였다. 선경일 전남도 상하이 사무소장은 "상하이에서 오찬을 주재할 당

시에도 후이량위(回良玉) 중국 부총리의 상하이 방문으로 바쁜 일정이었지만 시 총서기가 2시간 가량 시간을 할애했다"면서 "다정다감하고 소박했으며 고위 관료 낯새를 전혀 풍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 총서기는 저장성 당서기로 있을 때 항저우(杭州) 임정청사 복원을 승인했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데 기여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오늘 개막

나주 농기원... 친환경 농업제품·신기술 전시

전남도가 주최하는 '제 6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린다. '친환경 생명농업! 미래 희망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우리 농업의 현 주수와 미래 발전

전략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친환경 농업제품 및 신기술이 전시된다. 또 친환경 농업관을 비롯해 생명예술관, 누에 생태관, 사이버 농업관, 지역농업 특화관, 아이디어 농업관 등 9개 전시관과 허수아비·장승·솟대 전시장, 폐농기계 이용 정크(junk) 아트

전시 등 6개 부 전시관이 운영된다. 특히 전통농업 및 농경생활 체험, 천연향수·화장품 만들기, 고무마 캐기 등 15종의 체험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이벤트도 펼쳐진다. 전남도는 이번 농업박람회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계약과 대형 유통업체 약정 판매 등을 통해 200억원의 소득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신정아, 2005년 기획처 방문 변씨 면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인 지난 2005년 집무실에서 신정아씨를 면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씨는 2005년 6월9일 기획처 장관실에서 당시 변 장관을 면담했다. 기획처는 한달후인 2005년 7월에 미술품인 '움직이는 고요'(작가 윤영석)를 1천200만원에, '큰일났다 봄이 왔다'(작가 황규태)를 800만원에 각

각 사들였다. '움직이는 고요'는 기획처 회의실에, '큰일났다 봄이 왔다'는 장관실에 각각 전시돼 있다. 이와 관련, 기획처 관계자는 "신정아씨가 기획처를 찾아온 것은 '방문자 기록일지' 등에 의해 확인된 것이며 무슨 목적으로 방문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도대체 뭐 하자는 시주에이션?!

소년법 적용 연령 19세로 관련법 개정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의 적용 상한 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춰지고,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책임 무능력자를 뜻하는 '촉법소년(법법소년)' 범위가 현행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하향조정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년법 개정안 등 법률안 1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소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호 처분조차 받지 않았던 만10세~11세 소년들이 보호 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감명령 등 소년법이 규정된 방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김승연회장 구상금 청구 건보공단, 폭행사건 관련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굴욕은 아직 끝나지 않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3월 8일 발송한 서울 북창동 폭행사건과 관련,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9만2천890원을 받아내기 위해 구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구상금은 북창동 폭행 사건 피해자 한 명이 병원진료를 받고 낸 치료비 중에서 건보공단이 본인부담금을 빼고 병원에 지급한 금액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건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폭행 등 가해자로 인해 지급된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全州李氏翠山李昌圭(무등저축은행 會長) 以宿患 二〇〇七年十月二三日 午前六時十分(陰九月十三日) 別世 茲以訃告

주식회사 무등저축은행
재단법인 무등문화재단

未亡人 崔三順

子女 李 姜 金 金 李

孫婿 李 姜 金 金 李

外孫 李 姜 金 金 李

弟 李 姜 金 金 李

姪 李 姜 金 金 李

護喪 李 成 烈

訃 告

발인일시... 2007년 10월 25일 오전 9시

발인장소...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장 지... 전남 화순군 동면 경치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춘택법원 원장

무등저축은행 대표이사
송원대학교 교수

연락처... (062)223-5506(회사)
(062)231-8901(장례식장)

(個別訃告을 用花, 贈儀를 鄭重히 謝絶합니다.)